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

구종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해마다 3월이면 사회도 자연계처럼 새로운 생명력이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이 된다. 각급 학교가 신학기를 맞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 30만명의 신입생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3월의 사회적 활력소를 더해주고 있다. 대학 신입생들이 우선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학4년을 뜻있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지식과 교양을 튼튼히 다져놓는 것”이다. 이것은 전공과 학과를 초월해서 모든 대학생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해답이라 믿는다.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독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독서력은 학문과 교양의 전제이자 기초(infrastructure)다. 독서력을 키워 놓으면 공부는 쉽고 재미있어진다. 독서력 함양을 위해 대학생들, 특히 신입생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외국어다. 적어도 영어와 일본어는 읽고 듣고 말하기를 익숙하게 익혀두어야 한다. 영어는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일어는 방학을 이용해서 학원에 나가 두달 정도 집중하면 어느 정도 기초가 이루어진다. 외국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꼭 해두어야 할 과목이다. 영자신문과 시사영어 및 일본어저널과 같은 월간잡지를 구독하면 더욱 가속될 것이다. 둘째는 고전 문학 읽기다. 고전은 이미 좋은 작품으로 평가된 책들이다. 고전은 책이 많고 분량이 크기 때문에 우선 축재판을 읽는 것이 좋다. 잘 정리된 축재판이 많으므로 알고 싶은 것부터 골라 읽으면 된다. 요즘은 영어와 일어의 대역판 고전축재본이 나와 있으므로 주말마다 한두권씩 읽으면 된다. 어려운 단어까지 설명돼 있어 재미를 붙이면 주말이 즐겁게 기다려지게 될 것이다.

셋째는 역사다. 국사와 세계사를 여러번 읽어서 역사적 지식을 머리에 가득 입력시켜 두면 누구나 교양과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먼저 국사책. 가능하면 두껍고 정평이 나 있는 것을 사서 얘기책 읽듯이 반복해 읽으라. 다음엔 세계사 책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역사적인 지식(사실)과 인식(역사관)이 자기화(自己化)되면서 스스로 지적으로 성숙해가는 희열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역사는 우리 인류의 전기 내지 자서전이라고 믿고 소설 읽듯 읽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역사에는 모든 분야의 용어·지식·이론이 들어 있어 다른 분야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넷째는 철학이다. 흔히 철학을 ‘학문의 학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철학개론과 철학사·논리학을 꼭 읽기 바란다. 요즘은 쉽고 재미있는 철학서가 많이 나와 있으므로 각자 취향에 맞는 것을 사서 여러번 정독하면 된다. 다섯째는 전공과목의 개론서다. 이것은 책을 통째로 외운다는 각오로 철저히 이해하고 암기되도록 다져야 한다. 개론·원론 내지 통론을 철저히 해두면 각론은 아주 쉽게 끝낼 수 있다.

이상 다섯가지만 잘 해두면 무슨 책이든지 읽어내고, 어디서 누구와 만나 무슨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해당되는 책을 한두권 사서 반복해서 읽고, 중요한 부분엔 밑줄을 치고, 옆에다 소제목까지 달아두어야 한다. 서브노트까지 해두어 수시로 복습하면 더욱 재미있고 완벽해질 것이다.

이런 노력을 2년간 계속하면 공부의 준비가 끝날 것이다. 그후는 본격적으로 전공을 파고들면 된다.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 두개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 | | | |
|---------------|----|---|
| 권두 인터뷰 | 2 | 엄밀한 학문의 순수성 지킨 노철학자
(현상학) 펴낸 한전숙 교수 |
| 긴급 취재 | 4 | 《출판권》 둘러싸고 문학출판사들 갈등
허락없이 선집 형태로 재수록해 피해 속출 |
| 리뷰 | 6 | 대학 새내기들, 무슨 책을 어떻게 읽을까 |
| 특집 | 8 | 대학시절에 내가 읽은 책
금장태/김성곤/윤구병/황기원/이동하
정진국/주성혜/전승보/김경욱/고영직
김영진/김재인 |
| 출판화제 | 16 | “지성의 상아탑을 바로 세우자”
대학사회 문제 진단한 책 속속 출간 |
| 열굴 | 17 | 《편집에서 제책까지》 펴낸 서체연구가 홍우동씨 |
| 21세기의
출판주역 | 18 | 사진전문 출판사 ‘눈빛’의 이규상 사장 |
| 종합 서평 | 19 | 개성있는 잣대 지닌 엄정한 비평 —방민호
한만수·황국명·서영채의 평론집을 읽고 |
| 서평 | 20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정하영 |
| | 21 | 김철수 《법과 정치》—허종렬 |
| | 22 | 하비 《도시의 정치경제학》—조은숙 |
| | 23 | 황유복 외 《한·중불교문화교류사》—목정배 |
| 전시회 | 26 | 글과 그림이 풀어낸 ‘이미지’ 여행
‘화가들의 글·화가들의 책’ 전시회 |
| 서점가 | 28 | 질높은 전문 정보공간으로 자리한다
종교·어학·어린이 전문서점들에 발길 잦아 |
| 이 책 그 사람 | 30 | 《씨네마니아》 펴낸 여석기 교수
《우리 민족의 놀이문화》 펴낸 조원목씨 |
| | 31 | 《책》 펴낸 송경아씨
《종이거울 속의 슬픈 얼굴》 펴낸 최민식씨 |
| 책과 영상 | 32 | 여성주의 영화의 진보적인 세계관
‘페미니즘’ 텍스트로 등장한 소설과 영화 |
| 재미있는 기획산책 | 33 | 조각그림 맞추는 이야기 놀이책 —장익순 |
| 새책 흐름 | 34 | 일본의 실체를 생각한다·외 / 인문·사회 |
| | 36 | 21세기 과학과 우주의 신비·외 / 과학 |
| | 38 | 신간안내 / 45 새로 나온 책 |